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장자	소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위	여성일자리·인재 센터	성명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출장기간	2014. 9. 22(월) ~ 9. 26(금)		출장지	오스트레일리아(캔버라)		
출장목적	◦ 여성에 특화시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한 Australia의 AGOW(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의 Office for Women)방문 - 여성참여확대관련 제도/추진체계/성과 등 면담					
경비부담	일반과제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Ⅱ)」에서 부담					
방문기관		면담자		내용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for Women (AGOW)		Judy Edwards(policy analyst) , Angela Bowen(Events and General Inquiries)		- Office for Women와 Women on Boards 등 추진체계 - Office for Women와 Women on Boards의 기능 및 역할 - 호주 여성정책방향 및 성과 등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4. 10. 10.

출 장 복 명 자: 문 미 경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보고자 :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1. 출장 배경 및 필요성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주요 선진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Australia는 1986년 적극적 조치법(Affirmative Action Act)을 제정하였고, 2012년 개정된 고용평등법(Workplace Gender Equality Act)을 근거로 여성들의 경제적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여성에 특화시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한 Australia에서의 장시간에 걸친 여성고용 확대 및 고용조건에 대한 자료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많음.
- 본 출장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의 Office for Women 방문
 - The Office for Women 및 Women on Boards 기능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정책방향 및 성과 등 면담

2. 출장 일정

일자	세부내용	지역
9/22(월)	◦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출국 (인천 20:30 → 시드니 공항 7:30 +1)	인천→시드니
9/23(화)	◦ 시드니 → 캔버라 이동 ◦ 현지 방문기관 및 면담시간 확인 ◦ 면담내용 확인 및 정리	시드니→ 캔버라
9/24(수)	◦ OfW(The Office for Women) 방문	캔버라
9/25(목)	◦ Australian Parliament House 방문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방문 ◦ 캔버라 → 시드니 이동	캔버라→ 시드니
9/26(금)	◦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입국 (시드니 9:30 → 인천 7:20)	시드니→인천

3. 출장 결과

□ 호주의 여성정책 방향

○ 호주는 1980년부터 인종, 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연령,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쟁점화 되었음.

- 특히 당시 호주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차별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경제글로벌화, 급진적인 기술의 변화, 업무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고용차별 해소를 통한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함.

○ 직장내 여성평등기회법(Equal Opportunity Act for Women in the Workplace Act 1999)을 대체하여 제정된 2012년 직장내 양성평등법안 (Workplace Gender Equity Act 2012)은 호주정부의 양성평등 확대를 위한 최근의 정책방향을 보여 줌.

- 이 법안의 집행기구인 양성평등청(Workplace Equality Agency)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성 목표설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목표설정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원리로 (1) 명료성 (Clarity), (2) 단계성(Small Steps), (3) 관리성(Control), (4) 현실성(Realistic), (5) 책무성 (Accountability)를 제시하고 있음.

<표 1> 자율적 목표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기본원칙	주요내용
명료성	시간표에 따른 개선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료한 목표설정
단계성	장기목표 달성위한 과정적 중간점검이 가능한 단계별 목표설정
관리성	관리자가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과 방안에 대한 통제 가능한 목표설정
현실성	장애요인 등 정밀분석을 통한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책무성	목표에 대한 관리책임과 보상방안 마련

□ 추진체계

○ The Office for Women

- Office for Women는 총리와 정부의 작업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임. 호주에서 양성평등의 정책담당 기구는 총리내각부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¹⁾, 양성평등청(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등이 있음.

- 이 중에서 공공부문의 여성들의 리더십 역할 기회를 확대·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총리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산하 여성인력실(The Office for Women)에서 주관하고 있음. 즉, 공공부문의 여성인력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내각부에서 여성고용과 경력개발 관련 정책 중 한 분야로 담당함

- 호주 정부는 경제와 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공동 기여자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가치를 두고 있음. 여성들은 직장 및 그들이 속한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성들이 그들에게 가용 가능한 경력의 기회를 충분히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함.

- 2013년 9월 18일 공포된 행정명령(Administrative Arrangement Order)의 결과로서, 여성을 위한 기구(Australian Government office for women)가 정부조직(The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의 하나로 신설되었음. 이 기구는 정부 전체(Whole-of-Government Approach)들, 특히 인권위원회 내 성차별위원(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 within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과 양성평등청(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이 여성들에게 더 좋은 경제적 사회적 산출물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장하도록 하는 역할과 정책이슈에 대한 성별분석을 함.

- 이 기구의 역할은

-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 입법, 각료와 예산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이해를 고려하도록 함

- 여성관련 총리를 지원하는 장관에게 조언 제공

- 여성안전, 여성의 경제적 임파워먼트, 여성리더십을 포함하여 우선적 이슈의 범주에서 국가적 리더십 제공

- 부처간 그리고 정부간 포럼에서 긴밀한 관여

- 정부기구들, 여성분야, 비즈니스,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주요한 이해집단들과의 회의

- 국제사회 리포트와 여성대표성관련 국제포럼 등과 같은 양성평등문제 관련 국제적 관여 지원

- 성비 균형(40:40:20) 달성을 위한 지원

1) 특징적인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총리를 지원하는 장관(The Minister Assisting the Prime Minister for Women)을 별도로 임명하고 있음

- The Office for Women는 장관들과 부처위원회/부서들이 40%의 목표 성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 이 기구는 각 직위들이 목표 성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짐.

- The Office for Women는 호주 정부위원회/부처 관계자들이 그들의 기관에서 성비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찾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성비 균형 포럼을 제공함. 이 포럼들은 목표 성비 균형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막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함.

○ Women on Boards

- Women on Board은 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의 하부 섹션 기구인 Minister for Community Services, Minister for Indigenous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와 Minister for the Status of Women 등 3개 기구를 겸하고 있는 의원이 Women on Boards를 관할하며 호주 정부위원회에서 성균형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포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40:40:20이라는 목표설정을 통해 여성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역할의 대표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과 리더십을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더 넓은 문화적 변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Women on Board에서는 Gender Balance on Australian Government Boards Report를 작성하여 공포함

- 호주정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위원회에서 양성의 균형적 대표성 확보임. 2010년, 호주 정부는 여성비중 목표제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중을 최소한 40:40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나머지 20%는 양성 간 버퍼(buffer)로 구성하는 40:40:20 원칙을 제시함.

- 이러한 자율목표 달성을 위한 양성 균형적 위원회 임명(Gender-Balanced Appointments to Government Boards)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추진원리로 (1) 각 부처별 리더십의 적극적인 기여와 지원(Ministerial Commitment), 임명과정의 (2) 성과와 투명성(Merit and Transparency), 그리고 해당직위의 특성과 책무수준에 적합한 임명절차와 선택범주를 담보하기 위한 (3) 비례원칙(Proportionality)을 강조하고 있음.

○ BoardLinks

- BoardLink는 여성들이 위원회에 임명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이사직 경력을 발전시키고, 호주 정부위원회의 잠재적인 후보자 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네트워크임.

- 정부위원회/부처의 자격 있는 여성들을 찾고 이 여성들이 공공부문에서 고위관리직으로서의 경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여성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장래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풀을 확장하는데 기여함.

□ 성과

○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위직급에서의 여성들의 대표성은 여전히 미비함. The Office for Women에서 공공부문 여성인력관리를 주관하고 Women on Board에서 정부위원회에서 성균형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포하게 되면서 양성평등 수준은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달성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집자료

- GENDER BALANCE ON AUSTRALIAN GOVERNMENT BOARDS REPORT 2011-2012
- Guidelines for Gender Balance Performance and Reporting Australia 2013
- Workplace Gender Equality(Matters in relation to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strument 2013
- 2010 Gender Equality Blueprint